호국영웅의 넋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향해 '전진'



재석이 삼촌

왼손 하나뿐이지만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울 어무이가 옛날부터 놀다가 장갑 한 짝만 잃아뿌고 와도
퍼뜩 가서 찾아올 때까지는 집에 오지도 말라꼬 그랬는데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팔을 하나 잃아뿠다 아입니까?
그르이 어무이가 분명히 팔 찾아오라칼낀데
겁이 나서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예.

그래서 내 억수로 좋은 생각을 했다 아입니까?
손 잃아뿐 걸 어무이한테 안 들키야 되겠다.
왼손 하나로 두 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아입니까.

팔 하나가 없는 재석이 삼촌
나라에 팔을 바친 재석이 삼촌
항상 웃는 나무 같은 재석이 삼촌
한쪽 팔을 휘휘 저으며 논으로 일 나가는

고맙고도 고마운
재석이 삼촌

박성빈 2020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문예 부문 대상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며

싱그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지난 5월 어느 날, 현충일이 되려면 아직도 몇 주 남아 있지만, 우리 가족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봉산에 오릅니다. 호국영령의 혼이 서려 있는 우리 고장의 현충 시설인 수봉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깨끗하게 단장된 현충탑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을 떠올리며 그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낍니다. 그동안 현충일 추념 행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충탑 아래 헌화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가슴속 깊이 되새깁니다.

「나라를 지킨 영령들 우러러 여기 모시다 / 몸은 쓰러져도 넋은 나라를 놓지 않고 / 뜻은 겨레와 얽매이어 장하고 매운 정신 / 황해 마르도록 시민의 가슴에 흐르리라.」

현충탑을 뒤로하고 호국정신을 기리는 현충 시설을 둘러보며 절로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비문에 빼곡하게 새겨진 이름들은 아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10여 년 전에 연평도에서 살았습니다. 연평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땅과 가깝게 있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마을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방송에서 보이던 무섭고 처참한 모습들 사이로 평화롭던 예전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고, 드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망 좋은 등대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안목에 나가 낚시도 하고……. CCTV에 찍힌 포탄이 떨어진 곳은 바로 우리 가족이 살던 관사 바로 옆이었습니다.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피소에 모인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일 때마다 같이 뛰놀던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나오기 시작하였고 여객선에 간단한 짐만 챙겨 들고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연안부두에 도착하여 안도의 마음에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면 연평도 포격 사건도 10주기를 맞이합니다.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연평도 주민들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올해로 65회를 맞이한 현충일 아침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에는 먹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예년 같으면 이른 시간부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추념 행사가 축소되어 더욱더 애잔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10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묵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편히 사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향한 꿈이 있었기에 그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배경이 달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얀 국화를 헌화하면서 선열들이 꿈꾸어왔던 소중한 오늘을 우리가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수봉산을 오르는 이유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멀리 바다 건너 보이지 않는 연평도를 바라보며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소원하기 위함입니다. 남북한이 한민족 한겨레임을 명심하고 분단의 아픔, 전쟁 유가족의 아픔, 이산가족의 아픔, 연평도 주민들의 아픔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인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할 때 비로소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김재현** 2020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문예 수필 부문 중·고등부 장려상